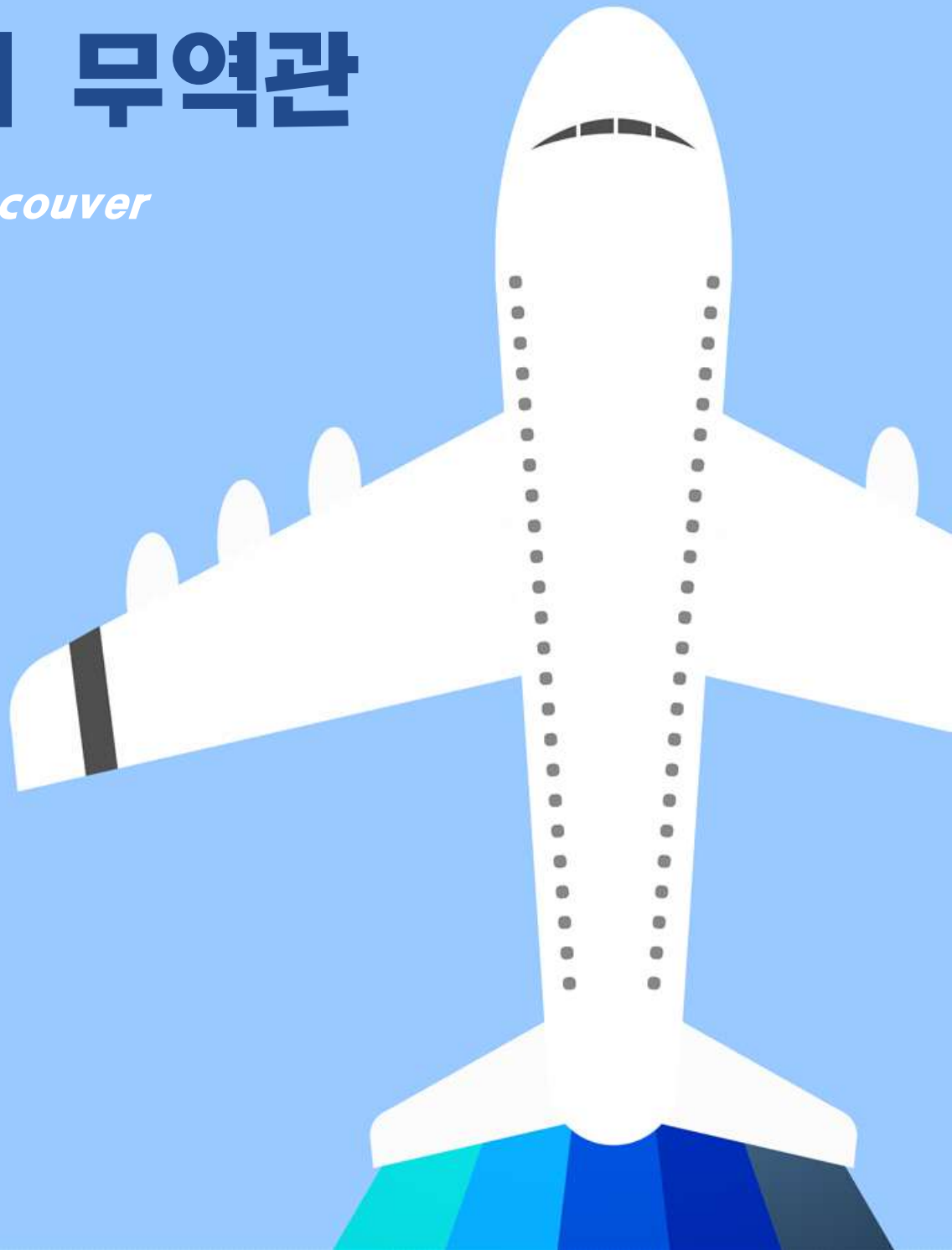


2024 해외출장 가이드

캐나다

밴쿠버 무역관

KOTRA Vancouver



목 차

I. 현지 체류 정보	1
II. 캐나다 경제 동향	3
III. 한·캐 교류 현황	9
IV. 캐나다 서부 개황	11
V. 加 서부시장 현황 및 전망	16
[붙임] 현지 체류 참고자료	19

I. 현지 체류 정보

1. 현지 기후

밴쿠버 날씨

- 밴쿠버의 기후는 온화한 편이며, 한 해 평균 강우량은 1,283mm 정도임.
가장 건조한 달은 7월이며 12월 평균 강우량이 많음

2. 체류 유의사항

복장(의류)

- 북위 49도 위치, 해양성기후를 띄며 겨울에는 비가 많이 오고 여름에는 건조한 편. 일교차에 대비해 얇은 긴소매와 외투 준비 필요
- 금융계 종사자, 공무원은 일반적인 정장 차림(양복 바지, 와이셔츠)이나 넥타이는 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음식

- 밴쿠버 중심지 Robson Street를 중심으로 다수의 한식당이 있음
- 이외에도 시내 중심가에 대형 한국식품 Supermarket(H-Mart : 590 Robson Street)이 있어 컵라면 등 한국식품은 쉽게 구매 가능

시차

- 한국 표준시간 KST -16시간 (서머타임 기간)*
 - 예) 밴쿠버 3월 12일 오후 5시 = 한국시간 3월 13일 오전 9시
 - * 서머타임 기간: 3월 12일(일) ~ 11월 5일(일)

□ 전기

- 전압(주파수) : 110볼트(60 Hz)
- 플러그 adaptor 휴대 필요(오른쪽 그림 참조)



□ 치안

- 밴쿠버 도심은 비교적 안전하나, 도심 동쪽 지역은 슬럼가로 노숙자(Homeless)들이 상주하는 곳으로 주의를 요함

□ 세금 및 팁 관행

- 모든 제품, 서비스 구입 시 12%의 세금 (주정부세 7%, 연방세 5%)이 별도로 부과됨
 - 식당 이용 시, 세금 포함된 요금의 15~20% 수준의 팁이 일반적임. 6~8명 이상 단체 손님 이용 시 16~18% 팁(Gratitude)이 자동으로 추가되는 때도 있어서 명세서를 확인할 필요 있음

□ 현금 사용

- 신용카드는 대부분 통용되나, 비상시를 대비 현금 보유 필요

3. 주요 연락처

□ 밴쿠버무역관

- 주소 : 780-999 Canada Place, Vancouver, BC, V6C 3E1
- 전화 : +1-604-683-1820 / 팩스 : +1-604-687-6249
- 이메일 : ktc@kotrayvr.com

□ 밴쿠버 총영사관

- 주소 : #1600-1090 W. Georgia St. Vancouver, BC, V6E 3V7
- 전화 : 1-604-681-9581 / 팩스 : 1-604-681-4864

II. 캐나다 경제 동향

1. 국가 개요

국 가 명	캐나다 (CANADA)
수 도	오타와(Ottawa) (* '교역하다'라는 뜻의 원주민어 'adawe'에서 유래)
면 적	9,984,670 km ² (세계 2위, 한반도 45배)
기 후	온대성 대륙성(중부내륙지방), 해양성(태평양 대서양연안), 한대성(북극권)
인 구	4,076만 명 (2024. 1월)
연방구성	10개 주(Province) 및 3개 준주(Territory)
주요지역	온타리오(1,590만 명), 퀘벡(898만 명) BC(560만 명), 앨버타(479만 명), 서스캐처원(122만 명), 매니토바(147만 명), 노바스코샤(107만 명), 뉴브런즈윅(84만 명) 등
언 어	이중 공용어 (영어 58% 및 불어 22%)
민 족	영국계 (28%), 프랑스계 (23%), 기타 유럽국가 (15%), 원주민 (2%) 기타 아시아인, 흑인, 아랍계 (6%), 기타 혼혈 (26%)
종 교	가톨릭(43.6%), 개신교(29.2%), 기타(6.7% 이슬람, 유대교 등)
국 체	입헌군주국 (영연방)
정 체	의원내각제 (양원제)
화 폐	캐나다 달러(dollar) (* 1 CAD ≒ 0.77 USD)
건국(독립)일	1867년 7월 1일(영국으로부터 독립)
국가원수 (실권자)	○ 국가원수: Charles III ○ 취임일: 2022.9.8
	○ 총독: Mary Simon (수상의 추천으로 국가원수가 임명) ○ 취임일: 2021.7월 (임기 5년+)
	○ 총리: Justin Trudeau (실권자) ○ 취임일: 2015.11.4

자료원 : Statistics Canada

2. 최근 경제 개황

□ 캐나다 주요 경제지표

구분	단위	2020	2021	2022	2023
실질 GDP	USD	1,643조	1,990조	2,057조	2,145조
1인당 GDP	USD	43,278	50,722	56,794	55,320
실질경제성장률	%	-5.4	5.0	3.6	1.0
물가상승률	%	0.7	3.4	6.8	3.9
실업률	%	9.6	7.5	5.3	5.8
대미환율	CAD/USD	0.74	0.79	0.77	0.74
수출	USD	3,894억	5,039억	5,988억	5,682억
수입	USD	4,052억	4,916억	5,716억	5,586억

자료원 : Bank of Canada, Statistics Canada, World Economics(2024년)

□ 2024년 경제 전망(내수 & 교역)

- (소비) 상반기 고물가·고금리에 소비심리 위축, 하반기 이후 완만한 회복세 지속
 - 장기간 이어진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가구 부채 상환 부담이 커져 現 소비심리 둔화세 '24년 상반기까지 지속
 - 늦어도 하반기 중 금리 인하가 기대되며, 이후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 2025년까지 견조한 성장세 유지 전망
 - * 加 실질소비지출 전망: '23년 3분기 0.1% 상승 ⇨ 4분기 0.1% 하락 ⇨ '24년 상반기 이후 완만한 증가세 유지
- (교역) 국내외 경기둔화 여파, 하반기 이후 교역환경 개선, 수출입 반등 기대
 - '24년 캐나다 수출 성장의 가장 큰 변수는 美 소비 회복. 하지만 美 소비수요가 단기간 내 회복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돼, 상반기 에너지 원자재 등 수출 둔화세 지속 예상
 - 수입은 상반기 국내 소비와 기업 지출 부진으로 수입 수요가 축소, 국내 소비와 투자 수요가 증가세로 전화되는 하반기부터 호전되기 시작해 '25년 3.2%까지 반등 가능 전망

<캐나다 2024년 주요 경제 전망 지표>

구분	2023		2024			
	Q3	Q4	Q1	Q2	Q3	Q4
가구 소비	0.1	-0.1	0.1	0.9	2.2	3.0
주거 투자	8.3	1.0	-0.7	3.3	4.7	5.8
비주거 투자	-10.1	0.2	0.9	1.0	0.4	0.3
수출	-5.1	-1.2	-1.3	-2.4	5.5	6.5
수입	-0.6	-1.6	-0.9	-1.1	1.3	2.4

자료원 : Deloitte 캐나다 경제 전망 보고서(2024년)

□ 2023년 수출입 현황

- 글로벌 경기둔화에 수출 감소, 무역수지 흑자 전년비 64.7% 급감
 - (수출) 전년(5,988억 달러)대비 5.1% 감소한 5,682억 달러
 - (수입) 전년(5,716억 달러)대비 2.3% 감소한 5,586억 달러
 - (수지) 교역량 감소에도 수출이 수입을 웃돌며 96억 달러 흑자 기록

<캐나다 연도별 수출입 동향>

(단위: US\$백만)

구분	2020	2021	2022	2023	증감률
수출	389,492	503,900	598,819	568,273	-5.1%
수입	405,214	491,652	571,664	558,683	-2.3%
무역수지	-15,722	12,248	27,155	9,590	-64.7%

자료원 : Trade Data Online(2024년)

□ 국가별 현황

- 10대 교역국과의 교역은 수입(-1.9%)보다 수출(-4.9%)이 더 감소
 - (수출) 주요 수출 감소국은 영국(-27.1%), 한국(-23.0%), 일본(-15.6%)
 - (수입) 주요 수입 감소국은 중국(-14.1%), 미국(-1.6%), 한국(-0.6%)

<캐나다 10대 수출입 대상국>

(단위: US\$백만)

순 위	수출				수입			
	국가명	2022	2023	증감(%)	국가명	2022	2023	증감(%)
1	미국	460,754	441,156	-4.2	미국	281,462	277,110	-1.6
2	중국	21,960	22,577	2.8	중국	76,952	66,077	-14.1
3	일본	13,840	11,683	-15.6	멕시코	31,820	34,127	7.2
4	영국	14,391	10,493	-27.1	독일	17,273	18,512	7.2
5	멕시코	6,987	6,488	-7.1	일본	13,153	15,300	16.3
6	네덜란드	5,001	5,496	9.9	한국	10,272	10,210	-0.6
7	독일	5,845	5,203	-11.0	베트남	9,866	9,823	-0.4
8	한국	6,676	5,140	-23.0	이탈리아	9,310	9,548	2.5
9	인도	4,103	3,773	-8.0	영국	6,657	6,965	4.6
10	홍콩	2,576	3,601	39.8	브라질	6,514	6,799	4.4
	합계	542,134	515,610	-4.9	합계	463,279	454,470	-1.9

자료원 : Trade Data Online(2024년)

□ 품목별 수출입 동향

- 상위 10대 교역 품목 중 (수출) 에너지 원자재 수출 큰 폭 감소, (수입) 승용차, 자동차 부품, 화물차, 터빈 등 기계/부품 수입 증가
 - (주요 수출품) 수출 상위 10대 품목 수출액 전년비 10.0% 감소
LPG(-43.5%), 원유(-17.4%), 유연탄(-17.0%), 정유(-14.9%)
 - (주요 수입품) 수입 상위 10대 품목 수입액 전년비 3.1% 증가
자동차부품(19.5%), 터빈(16.3%), 승용차(15.2%), 화물차(4.0%)
- BC주(7월) 항만노조 파업 여파로 對 아시아 원자재 교역에 차질
 - BC주 밴쿠버항과 프린스루퍼트항은 대표적인 加 서부 교역 관문으로 캐나다 교역 상품의 25%를 처리▶연간 처리 화물량 약 2,900억 달러 규모
 - BC주 항만노조 파업 장기화로▶7월1일~8월4일 화물 하역 작업에 차질이 빚어져 아시아 시장으로의 에너지 원자재(원유, 정유, LPG 등) 수출에 타격

<캐나다 10대 수출입 품목>

(단위: US\$백만)

순위	수출					수입					
	코드	품목	2022	2023	증감(%)	코드	품목	2022	2023	증감(%)	
1	2709	원유	120,519	99,553	-17.4	8703	승용차	33,343	38,415	15.2	
2	8703	승용차	29,479	37,871	28.5	8704	화물차	19,774	20,573	4.0	
3	7108	금	15,332	20,532	33.9	8708	자동차부품	16,941	20,249	19.5	
4	2710	정유	17,037	14,496	-14.9	2710	정유	20,187	17,519	-13.2	
5	2711	LPG	24,241	13,696	-43.5	2709	원유	16,560	14,496	-12.5	
6	8708	자동차부품	12,733	13,424	5.4	8517	전화기	12,755	12,689	-0.5	
7	2701	유연탄	10,832	8,993	-17.0	8471	PC부품	11,430	10,032	-12.2	
8	1001	밀	7,889	8,837	12.0	7108	금	8,105	9,538	17.7	
9	3104	비료	12,627	8,569	-32.1	3004	의약품	10,078	9,505	-5.7	
10	3004	의약품	9,667	8,275	-14.4	8411	터빈	5,744	6,683	16.3	
합계			260,356	234,246	-10.0	합계			154,917	159,699	3.1%

자료원 : Trade Data Online(2024년)

4. 캐나다 시장 특성

□ 지역별 뚜렷한 산업구조

- 캐나다는 동, 서부 지역별 산업구조가 확연한 차이를 보임
 - 따라서 현지 시장 진출 시 해당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전략 수립 필요

구분	주요 지역	GDP 비중	주요 산업
동부	온타리오, 퀘벡	약 65%	- 제조업체(항공, 자동차, 철강 등) 집중 - 대부분의 기업 본사 소재
서부	BC, 앨버타, 서스캐처원	약 35%	- 1차 산업 및 서비스업 발달 * BC주: 광업, 임업, 서비스업 * AB, SK주: 광업, 농식품업

□ 미국 의존성이 높고 완제품 위주의 시장

- 미국은 캐나다의 가장 큰 교역국, 총 교역량의 66% 차지 (수출 77%, 수입 49%)
 - 미국 경기 및 환율 변동에 따른 영향이 크며 다른 국가제품들이 미국을 통해 재수입되는 경우도 많음
- 캐나다는 넓은 국토에 비해 인구가 적어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지 못해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완제품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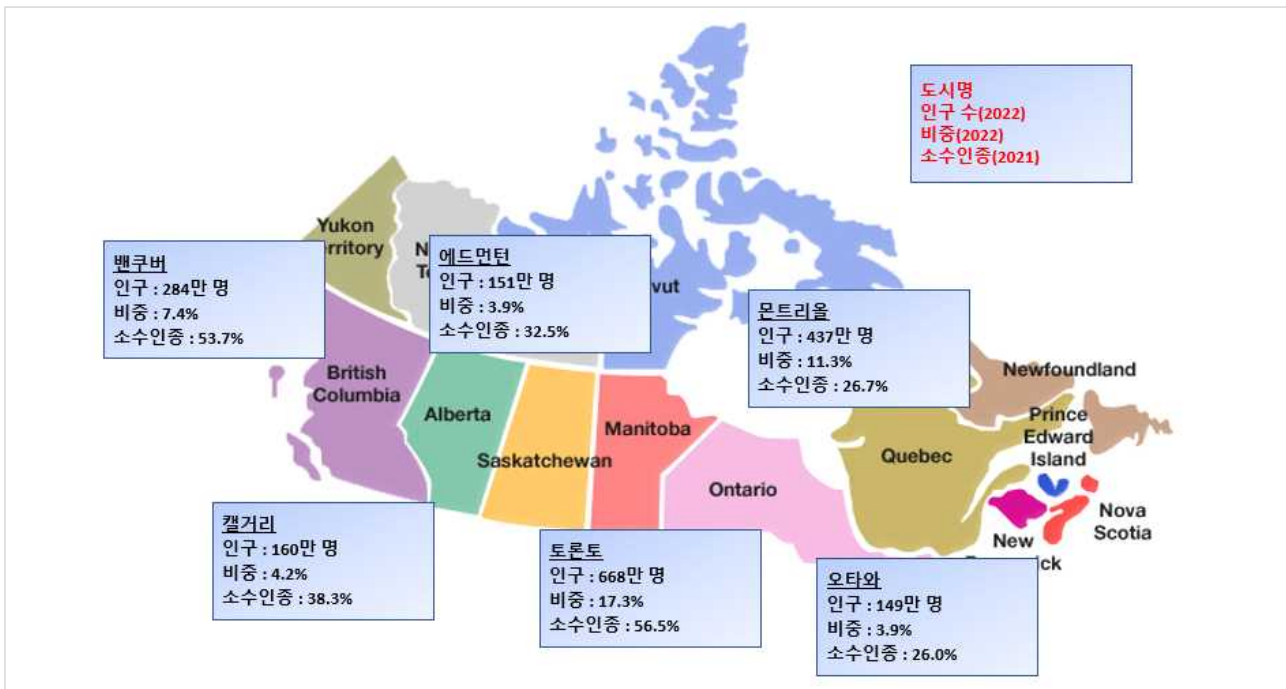
□ 제품별 유통망 통합 추세

- 캐나다는 한국과 달리 제품별로 별도의 유통망이 존재함. 가전, 생활용품, 식료품, 의류, 주류 등 제품에 따라 상이한 유통망 존재
 - 가전: Future Shop, Radio Shack, Best Buy, Visions 등
 - 주류: Liquor Store
 - 생활용품: Canadian Tire, Rona, HomeDepot
 - 식료품: Loblaw, SupreStore, SafeWay, SaveOnFood, H-Mart(한인매장) 등
 - 의류: 백화점(The Bay, Sears, Zellers), SportsCheck 등
- 최근 유통망의 치열한 경쟁 및 실적 감소 등으로 유통망들이 주류(정부 독점)를 제외한 기존 취급하지 않은 제품을 취급 시작
 - 월마트, 코스트코, 홈쇼핑(The Shopping Channel) 등
 - 최근 대형 소매판매점 등도 직수입 및 유통 시작

□ 아시아계 이민자 시장 급성장

- 캐나다는 다민족(multi-culturalism) 사회로 민족별 특성상품 시장이 존재하며 민족 간 소비패턴이 상이함
 - 오랜 이민역사를 바탕으로 한 독일, 이탈리아계가 대도시 상권 형성
 - 소비패턴 (유럽계) 스포츠, 레저, 문화활동에 대한 소비 강함 (중국계) 주택, 자동차 등 고액 소요 분야 소비력 강함
- 최근 중국, 인도계 이민 급증하였고 이들을 중심으로 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유통업계에서도 이민계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전개
 - BC주 식품업 바이어 상당수가 아시아계임 (밴쿠버는 아시아계가 주류)

<캐나다 주요 6대 도시별 인구 및 소수인종 비중>



자료원 : Statistics Canada(2021년 인구센서스 집계 기준)

□ 가성비 높은 실용적인 제품 선호

- 고기능성 제품도 비싸면 구매 수요 약해, 가성비 높은 제품 선호
 - 현지 시장에서는 소비재 제품의 경우 품질과 기능이 우수한 '고기능성' 제품이라도 현지 소비자 눈높이 기준에서 가격이 높으면 구매 수요가 약해 경쟁력 있는 가격에 실용성을 갖춘, 가성비 높은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큼
 - 또한 식품의 경우 건강, 친환경 등 경쟁제품 대비 차별화된 포인트를 지닌 제품이 시장에서 구매 수요가 높은 편임

Ⅲ. 2023년 한·캐 교류 현황

1. 한·캐 무역 동향

□ 수출입 개요

- (수출) 전년(78억 3,900만 달러)대비 7.6% 증가한 84억 3,400만 달러
- (수입) 전년(85억 3,900만 달러)대비 27.5% 감소한 61억 9,400만 달러
- (무역) 전년(163억 7,800만 달러)대비 10.7% 감소한 146억 2,800만 달러
- (수지) 2023년 무역수지는 수출이 수입을 웃돌며 22억 4,000만 달러 흑자

<한국 대(對) 캐나다 교역 현황(단위: US\$백만)>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
수출	5,568	5,464	6,714	7,839	8,434
수입	5,759	4,415	6,370	8,539	6,194
무역수지	-191	1,049	345	-700	2,240
총교역액	11,327	9,879	13,084	16,378	14,628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2024년)

□ 품목별 수출입

- 최대 수출 품목인 (전기) 자동차 약진으로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
 - 캐나다 정부의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지원에 힘입어 전기차 등 친환경차 수요가 크게 늘면서 기존 내연기관 위주에서 전기차▶^{146.6%}와 하이브리드차▶^{81.1%} 수출이 빠르게 증가

<한국 대(對) 캐나다 10대 수출입 품목(단위: US\$백만)>

순위	수출					수입					
	코드	품목	2022	2023	증감%	코드	품목	2022	2023	증감%	
1	8703	승용차	3,295	4,743	43.9	2701	유연탄	2,624	1,774	-32.4	
2	8708	자동차부품	252	235	-6.9	2603	동광	680	577	-15.1	
3	7106	은	91	186	104.1	2601	철광	702	503	-28.4	
4	7210	철강(평판)	106	139	31.7	2711	LPG	499	370	-25.9	
5	8418	냉장기구	126	110	-12.7	0203	돼지고기	199	265	33.0	
6	7216	철강(형강)	202	96	-52.3	3104	비료	381	193	-49.3	
7	8413	펌프	75	86	14.7	4705	목재 펄프	162	134	-17.4	
8	7208	철강(후판)	159	80	-49.6	3004	의약품	162	116	-28.1	
9	2710	정유	39	80	107.9	7502	니켈	168	108	-35.8	
10	8451	세탁/건조기	67	78	16.4	4703	화학제품	146	99	-32.0	
합계			4,412	5,833	32.2	합계			5,723	4,139	-27.7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2024년)

2. 한·캐 투자 동향

□ 캐나다의 對 한국 투자 현황(산업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자료’ 참고)

- (연도별) ‘23년 신고 금액은 전년과 동일한 5억 달러 기록
- 신고 건수는 전년比 18.5% 증가한 32건 기록

(단위 : U\$백만)

연도	2020	2021	2022	2023
신고금액	1,847	502	507	507
신고건수	49	38	27	32

- (업종별) 금융/보험, 부동산, 정보통신, 제조, 광업 부문 투자 집중

- 특히 금융/보험, 정보통신, 광업, 부동산 부문 투자가 전년비 크게 성장

(단위 : U\$백만)

구분	2022		2023		전년동기 증감률(%)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금융·보험	1	0.3	3	236	200	78,567
부동산	2	20	3	119	50	495
정보통신	0	0	6	80	600	8,000
제조	10	49	8	47	-20	-4
광업	0	0	2	19	200	1,900

□ 한국의 對 캐나다 투자 현황(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동향 자료’ 참고)

- (연도별) ‘23년 신고 금액은 전년比 5.9% 증가한 27.6억 달러 기록
- 신고 건수는 전년比 4.8% 증가한 110건 기록

(단위 : U\$백만)

연도	2020	2021	2022	2023
신고금액	2,566	3,417	2,614	2,767
신고건수	92	101	105	110

- (업종별) 광업, 금융/보험, 제조, 건설, 운수/창고, R&D 부문에 투자 집중

- 광업, 건설 부문은 전년비 투자가 크게 늘고 금융/보험, 운수/창고, R&D 부문 투자는 감소

(단위 : U\$백만)

구분	2022		2023		전년동기 증감률(%)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광업	7	23	9	1,525	28	6,530
금융/보험	27	1,125	35	613	29	-45
제조	14	379	17	517	21	36
건설	2	1	8	51	300	5,000
운수/창고	3	33	2	24	-33	-27
R&D/과학기술	9	31	15	17	66	-45

IV. 캐나다 서부 개황

1. 지역 현황

□ 개요

- 캐나다 서부 지역 5개 (준)주 위치 ⇨ 하지만 경제·산업은 3개 주에 집중
 - (지리개관) 대한민국 면적의 23배, 인구는 1,135만 명 정도로 1/4 수준
 - (경제규모) 실질 GDP C\$7,278억(캐나다 전체 GDP의 35.4% 차지)



- 한국어, 모국어 사용자는 약 7만 1,750명(2021년 인구센서스 집계 기준)
 - (모국어 기준) 영어(732만 명, 71.1%) vs 한국어(8만 865명, 0.8%)
 - (민족/문화 기준) 캐나다인(105만 명, 10.2%) vs 한국인(9만 8천 명, 1.0%)
- <加 서부 3개 주 한인 인구 현황(2021년 인구센서스 통계 기준)>

구분	BC	앨버타	서스캐처원	합계
언어 (모국어*)	영어: 67.1% 한국어: 1.2%	영어: 73.0% 한국어: 0.5%	영어: 81.7% 한국어: 0.2%	영어: 71.1% 한국어: 0.8%
민족 문화	캐나다: 9.3% 한국: 1.5%	캐나다: 11.5% 한국: 0.6%	캐나다: 9.6% 한국: 0.2%	코카서스: 10.2% 한국: 1.0%

* 모국어: 출생 후 가정에서 부모에게 배운 언어(Fist Language). 하지만 성장과정에서 모국어를 잃어버린 경우 새로이 습득한 Second Language를 모국어로 인정

□ 서부 정치 상황

○ 서부 5개 주 집권당, '5당 5색'

- (집권정당) 신민당(1) + 보수당(1) + 서스캐처원당(1) + 자유당(1) + 무소속(1)
- (정치성향) 진보성향(2) + 보수성향(2) + 무소속(1)

지역	수상		집권당	정치성향	정부형태
BC	David Eby		신민당 (NDP)	진보	다수정부 (Majority)
앨버타	Danielle Smith		보수당 (UCP)	중도우파	다수정부 (Majority)
서스캐처원	Scott Moe		서스캐처원당 (SP)	중도우파	다수정부 (Majority)
유콘	Ranj Pillai		자유당 (Liberal)	중도좌파	소수정부 (Minority)
노스웨스트 준주	Caroline Cochrane		무소속 (합의제)	-	-

○ 주요 3개 주 정치 이념 및 특징

- **(BC)** 보수성향과 진보성향이 공존. 보수당과 진보당이 양립하고 있으며, 보수성향이 강한 지역과 진보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나뉨. 그러나 최근 몇 년 간은 진보적 성향이 강한 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우세
- **(앨버타)** 보수성향이 강한 지역임. 보수당인 앨버타 진보 보수당(Alberta Progressive Conservative Party)이 오랫동안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왔으며, 현재는 또 다른 보수당인 연합보수당(United Conservative Party)가 다수당으로 집권. 앨버타주는 화석연료를 옹호하는 친경제적 정책을 선호하며, 환경보호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서스캐처원)** 주민 대다수가 보수성향 강해 정치적으로도 보수당이 지배적이며, 2007년 이후 중도우파의 서스캐처원당이 다수당으로 지지를 받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음. 서스캐처원주는 농업과 광업 등 자원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경제 개방성은 높은 편임

2. 경제 현황

□ 경제지표

- 서부 3개 주 평균 성장률(1.6%), 전국 평균(1.2%) 상회
 - (성장률) BC(1.6%) = 서스캐처원(1.6%) > 앨버타(1.5%)
 - (무역) 수출(U\$2,091억) > 수입(U\$973억) ⇨ 무역 흑자 지속
- <2023년 캐나다 서부 3개 주 주요 경제지표>

구분	단위	브리티시컬럼비아	앨버타	서스캐처원
실질 GDP	C\$억	3,041	3,362	778
실질경제성장률	%	1.6	1.5	1.6
실업률	%	5.1	5.8	4.8
무역 규모	U\$억	977	1,605	482
상품 수출	U\$억	427	1,299	365
상품 수입	U\$억	550	306	117

자료원 : Statistics Canada, Trade Data Online(2024년)

□ 산업구조

- 산업별 GDP 기여도: 서비스 68.0% vs 상품 32.0%
 - (서비스) 부동산(C\$1,055억, 14.7%) > 의료(C\$531억, 7.4%) > 전문과학기술(C\$447억, 6.2%)
 - (상품) 광업(C\$889억, 12.4%) > 건설(C\$622억, 8.7%) > 제조(C\$479억, 6.7%)
- 업종별 전년비 성장률은 숙박 & 요식(4.4%), 운송/창고(4.4%), 의료(3.5%), 전문과학기술(3.4%) 순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임

<캐나다 서부 5대 산업 성장 추이(단위: C\$백만)>

#	산업	2020	2021	2022	2023	성장률('22~'23)
1	부동산	98,187	102,146	103,250	105,585	2.3%
2	광업	74,888	81,645	86,974	88,982	2.3%
3	건설	54,272	58,908	62,514	62,247	-0.4%
4	의료	46,030	49,821	51,310	53,118	3.5%
5	제조	44,513	46,843	48,023	47,951	-0.2%

자료원 : Statistics Canada(2024년)

3. 무역 현황

□ 수출입 현황

- 총 교역규모는 전년비 12.5% 감소한 3,063억 달러, 1,118억 달러 흑자
 - (수출) 加 서부 지역 수출, 전년비 15.6% 감소한 2,091억 달러
 - (수입) 加 서부 지역 수입, 전년비 5.2% 감소한 973억 달러
- BC주가 3개 주중 유일하게 무역수지 적자, 앨버타주 흑자 규모 전국 최고
<2023년 加 서부 3개 주 수출입 현황(단위: U\$백만)>

지역	수출	수입	무역수지
BC	42,689	55,007	-12,318
앨버타	129,964	30,591	99,373
서스캐처원	36,463	11,682	24,781
합계	209,116	97,280	111,836

자료원 : Trade Data Online(2024년)

□ 품목별 교역현황

- 주요 원자재 수출 전년비 큰 폭 감소, 운송장비, 건설/기계 수입 크게 증가
 - (수출 감소) 제재목(-41.8%), LPG(-44.4%), 비료(-31.8%), 유연탄(-17.0%), 원유(-16.5%)
 - (수입 증가) 승용차(57.4%), 트랙터(36.4%), 화물차(24.2%), 불도저(15.8%)
- <2023년 加 서부 3개 주 10대 수출입 품목(단위: U\$백만)>

순위	수출					수입					
	코드	품목	2022	2023	증감(%)	코드	품목	2022	2023	증감(%)	
1	2709	원유	112,574	94,022	-16.5	2710	정유	9,667	8,916	-7.8	
2	2711	LPG	23,118	12,863	-44.4	8703	승용차	2,826	4,448	57.4	
3	2701	유연탄	10,831	8,993	-17.0	8419	온수기	1,562	1,775	13.7	
4	3104	비료	12,559	8,562	-31.8	8701	트랙터	1,146	1,563	36.4	
5	1001	밀	5,903	6,884	16.6	8429	불도저	1,220	1,412	15.8	
6	4407	제재목	7,018	4,082	-41.8	8517	전화기	1,270	1,178	-7.2	
7	1514	유채유	3,629	3,853	6.2	8431	기계부품	1,213	1,158	-4.5	
8	1205	유채씨	3,533	3,670	3.9	8704	화물차	923	1,146	24.2	
9	0713	콩(건조)	2,959	2,999	1.4	8471	PC부품	1,481	1,111	-25.0	
10	4703	화학목재펠프	3,618	2,864	-20.9	8481	탭/밸브	1,038	1,021	-1.6	
합계			185,742	148,792	-19.9	합계			22,346	23,730	6.2

자료원 : Trade Data Online(2024년)

4. 한국과의 교역 관계

□ 수출입 개요

- (수출) 전년(22억 7,400만 달러) 대비 15.3% 감소한 19억 2,500만 달러
- (수입) 전년(45억 4,300만 달러) 대비 26.7% 감소한 33억 2,900만 달러

<한국 대(對) 캐나다 서부 교역 현황(단위: US\$백만)>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감률('22~'23)
수출	1,118	1,545	2,274	1,925	-15.3%
수입	2,127	3,046	4,543	3,329	-26.7%
무역수지	-1,009	-1,501	-2,268	-1,404	-38.1%
총교역액	3,244	4,591	6,817	5,254	-22.9%

자료원 : Trade Data Online(2024년)

□ 지역별 수출

- '23년 對 서부 수출은 3개 주 모두에서 전년비 큰 폭 하락
- 수출액 규모는 BC가 16억 2,400만 달러로 가장 높은 비중(84.3%) 차지

<한, 대(對) 캐나다 서부 지역별 수출 현황(단위: US\$백만)>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감률('22~'23)
BC	934	1,347	1,946	1,624	-16.5%
앨버타	154	167	254	233	-8.3%
서스캐처원	30	31	74	68	-8.1%
합계	1,118	1,545	2,274	1,925	-15.3%

자료원 : Trade Data Online(2024년)

□ 품목별 수출입

- 건설기계·장비 수출 증가세 뚜렷, 배터리 핵심 소재 원료인 코발트 수입 648% 증가
- 加 정부 경기 부양성 인프라 투자 확대와 광물 채굴 증가로 건설장비 수요 확대
- 국내 기업의 배터리 소재 공급망 다각화 전략으로 캐나다산 코발트 수입 크게 증가

<한국 대(對) 캐나다 서부 10대 수출입 품목(단위: US\$백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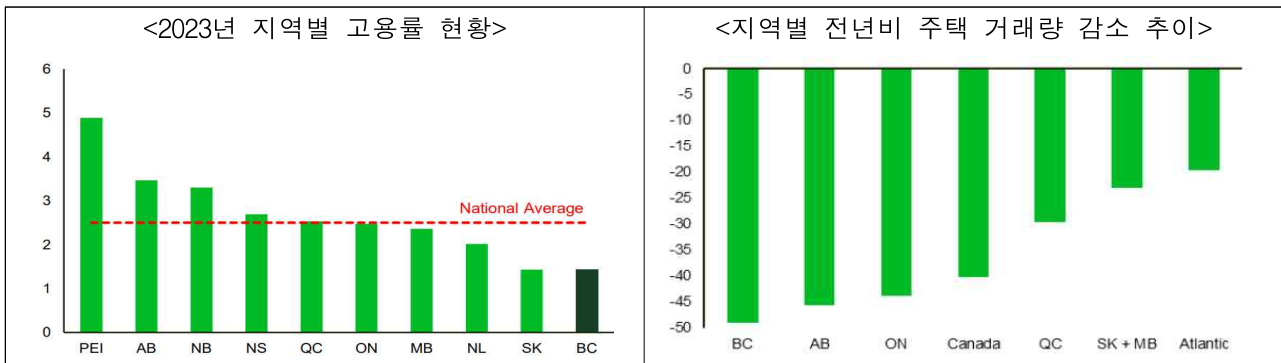
순위	수출					수입				
	코드	품목	2022	2023	증감%	코드	품목	2022	2023	증감%
1	7305	철강(파이프)	129	111	-13.8	2701	유연탄	2,019	1,554	-23.0
2	8429	건설기계	73	105	44.0	2603	동광	635	358	-43.7
3	7210	철강(평판)	94	90	-5.1	2711	LPG	374	326	-13.0
4	7306	철강(튜브)	94	89	-5.7	4703	화학목재펄프	121	97	-20.2
5	2710	정유	66	86	30.5	3104	비료	60	96	59.7
6	7106	은	163	84	-48.7	4705	목재 펄프	107	89	-16.8
7	8413	펌프	75	72	-4.6	7502	니켈	177	69	-61.3
8	7208	철강(후판)	90	67	-25.6	0202	냉동쇠고기	103	68	-34.0
9	8418	냉장기구	71	59	-16.3	8105	코발트	8	63	648.2
10	7216	철강(형강)	133	57	-57.2	2608	아연	121	62	-49.2
	합계		988	820	-17.0	합계		3,725	2,782	-25.3

자료원 : Trade Data Online(2024년)

V. 캐나다 서부 시장현황 및 전망

□ 브리티시컬럼비아(BC)

- (2023년) 가계 지출, 주거 투자 위축에도 성장률 1.6%로 전국 평균 상회
 - 부채: BC주 가구당 부채 비중은 전국에서 최고, 이로인해 지역 경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 더 크게 둔화하고 단기 성장을 제한
 - 소비: 인플레이션 여파로 BC주 실질 소비 지출이 2~3% 감소, 전국에서 가장 소비 감소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남
 - 고용: '23년 일자리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1.5% 그쳐, 전국 증가율(2.4%)을 밀돌아 양호하던 고용 시장의 둔화세가 감지
 - 교역: BC주 상품 수출은 글로벌 수요 약세와 주요 원자재 가격 하락, BC주 항만 파업 등 여파로 감소 추세를 보이며 '23년 수출액은 전년비 16.2% 하락



자료원 : TD Economic Forecast(2023년)

- (2024년) 고금리·고물가 여파 내수 감소가 경제 회복 걸림돌, 경제성장률 전국 최저 수준 전망
 - '24년 BC주 경제성장률 예측치는 0.3%로 전국 평균(0.5%)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
 - 가장 큰 원인은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주거 시장 위축, 소비 감소 장기화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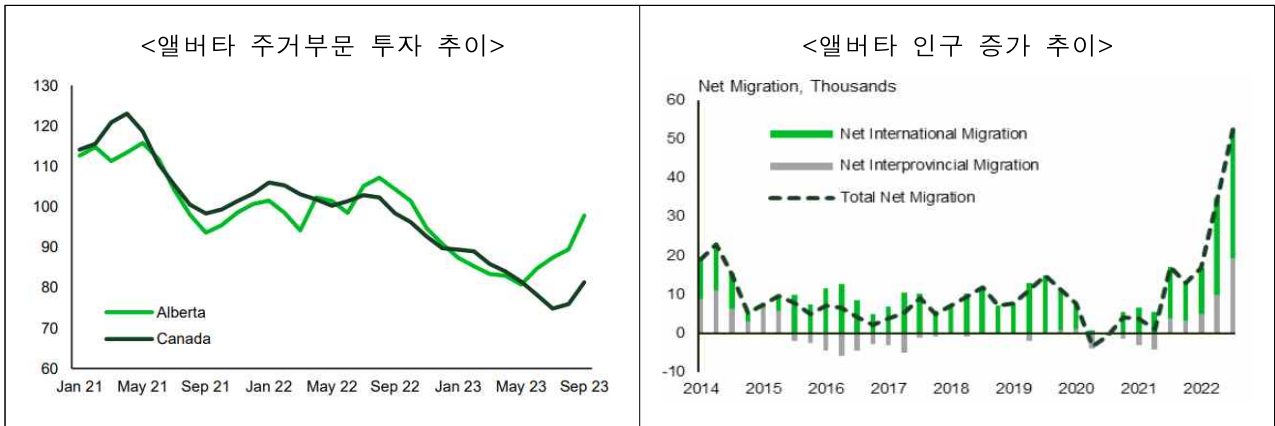
<BC주 경제성장률 전망>

구분	2023	2024	2025
실질 GDP(%)	1.6	0.3	1.8
실업률(%)	5.1	6.1	6.1
신규주택착공(천 가구)	51.2	46.3	42.3
주택 거래(%)	-9.1	0.3	19.6

자료원 : Statistics Canada(2024년), TD Economic Forecast(2023년)

□ 앨버타

- (2023년) 에너지 부문 호조로 경기둔화세 상쇄, 전국 평균 성장률 상회
 - 에너지 부문의 성장과 회복에 힘입어 심각한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었으며 '23년 1.5% 성장률 기록
 -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오일 시추 활동 및 투자가 전년대비 크게 성장
 - 기록적인 인구 증가로 주택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주거 부문 건설 투자 촉진



자료원 : TD Economic Forecast(2023년)

- (2024년) Trans Mountain 송유관 가동으로 원유 수출 3배 증가, 경제성장 견인
 - '24년 앨버타주 경제성장률 예측치는 1.4%로 국가 평균(0.5%)을 크게 웃돌 전국 최고 성장률 기록 전망
 - 올해 Trans Mountain 송유관 확장사업 완료 이후 지역 원유 수출량이 대폭 증가해(역외 수출량 3배 증가) 지역 경제성장에 긍정적 작용 기대
 -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주거 및 비주거 부문 건설 투자가 탄력을 받고 있으며 특히 지난 4월 이후 주택 착공이 35% 증가하는 등 주거 부문 성장 뚜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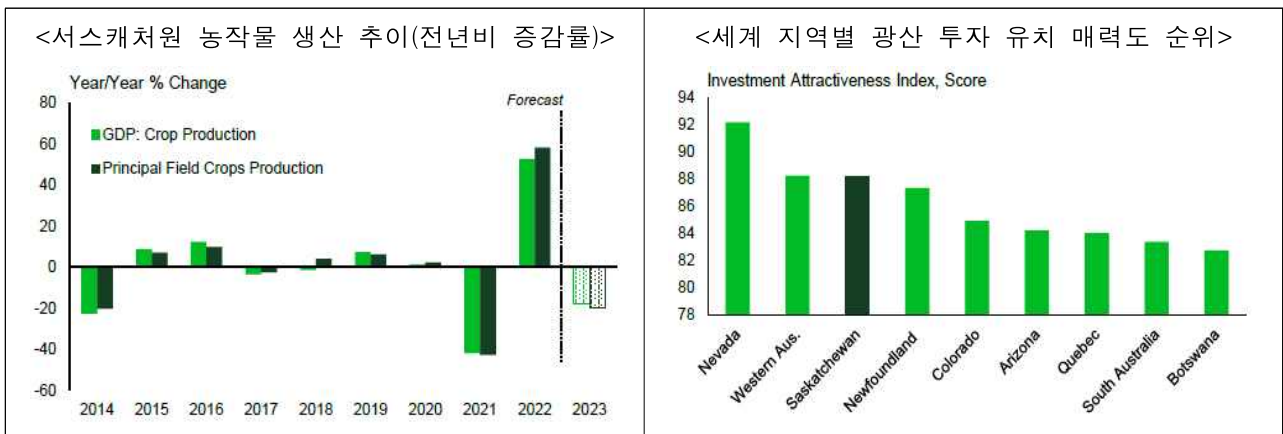
<앨버타주 경제성장률 전망>

구분	2023	2024	2025
실질 GDP(%)	1.5	1.4	1.8
실업률(%)	5.8	6.3	6.4
신규주택착공(천 가구)	34.4	33.3	31.4
주택 거래(%)	-9.1	10.8	5.5

자료원 : Statistics Canada(2024년), TD Economic Forecast(2023년)

☐ 서스캐처원

- (2023년) 내수 시장 안정이 성장 회복을 견인하며, 성장률 1.6% 전국 평균 추월
 - 캐나다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가뭄, 산불 등 심각한 기상재해로 인해 올해 서스캐처원 주요 작물 생산량은 전년비 약 20% 감소 예상(서스캐처원 농업 GDP 기여 비중 8%)
 - 여기에 밴쿠버 항만 파업의 악재가 겹쳐 칼륨 수출량 또한 전년대비 하락
 - 다만, 안정적인 주택 가격이 지역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역으로 인구 유입을 촉진해 내수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



자료원 : TD Economic Forecast(2023년)

- (2024년) 오일, 우라늄 등 원자재 수출 전망 밝음, 경기 회복과 성장 견인
 - '24년 서스캐처원주 경제성장률 예측치는 1.2%로 국가 평균(0.5%)을 크게 웃돌며 높은 성장률 기록 전망
 - 특히 원유 등 에너지 부문 전망이 비교적 밝은 편. WTI 원유 가격은 향후 몇 년 동안 70~85달러의 견조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석유 생산량은 중기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우라늄 또한 가격이 최근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여 시가 레이크(Cigar Lake) 광산과 키 레이크(Key Lake)의 생산량 증가 기대

<서스캐처원주 경제성장률 전망>

구분	2023	2024	2025
실질 GDP(%)	1.6	1.2	1.5
실업률(%)	4.8	5.5	5.6
신규주택착공(천 가구)	4.5	4.3	4.6
주택 거래(%)	-3.5	7.1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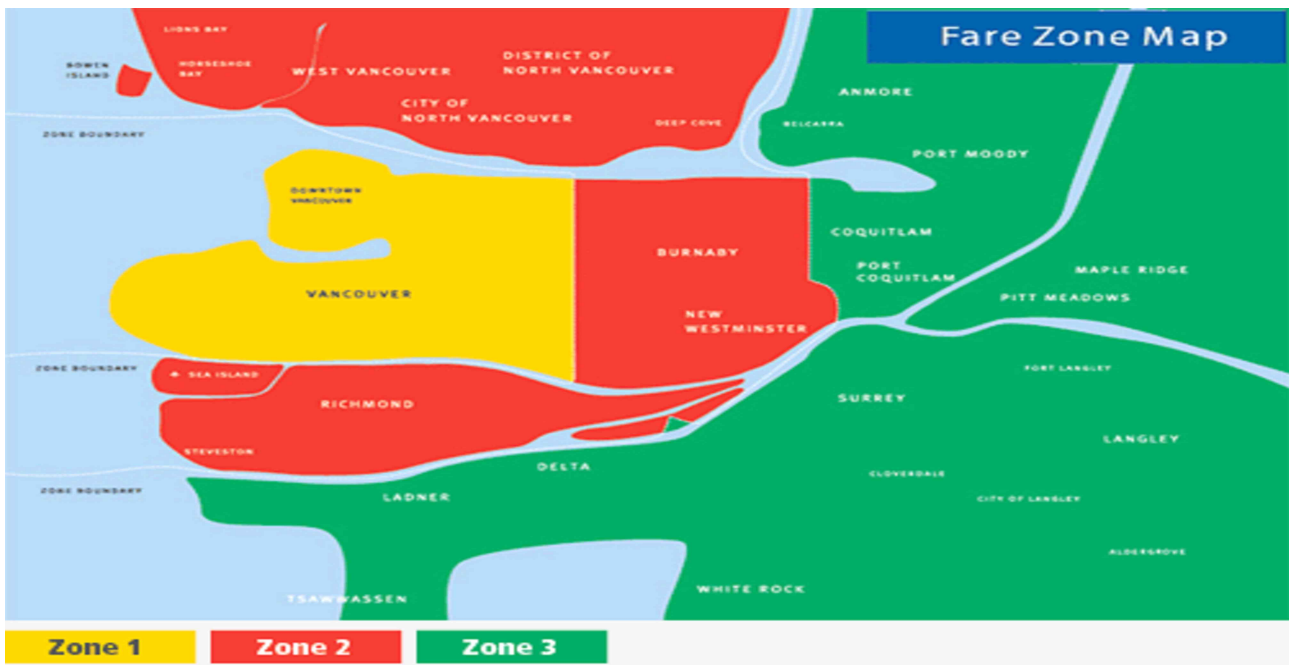
자료원 : Statistics Canada(2024년), TD Economic Forecast(2023년)

[붙임] 현지 체류 참고자료

☐ 대중교통

- (스카이트레인, 기차) 밴쿠버의 교통체계는 전체 광역밴쿠버를 3개의 존(Zone)으로 나누어 운영하며 C\$2.75(1존)~C\$5.50(3존) 가격의 한 장의 티켓을 구입하면 횟수에 관계없이 90분간 모든 교통수단(버스, 스카이트레인, 수상버스(Sea Bus)을 이용할 수 있음. 평일 오후 6:30분 이후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존에 상관없이 1존 가격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음.

<광역 밴쿠버 대중교통 요금 존(Zone) 안내도>



- (택시) 호텔 및 도심 외각지역에서는 콜택시를 부르는 것이 좋으며, 기본요금은 C\$3.20부터 이후 54.44미터 마다 \$0.10씩 과금됨. 대개 요금의 10%의 금액을 택시 기사에게 팁을 주는 관행이 있음.

※ 주요 택시: Yellow Cab(604-681-1111), Vancouver Taxi(604-871-1111)

□ 주요 명소

○ 스탠리 공원 (Stanley Park)



- 다운타운 서북쪽 위치, 면적 400만m², 뉴욕 센트럴 파크의 1.1배
- 1888년 당시 총독인 스탠리 경의 이름을 따서 명명됨
- 해안을 따라 자전거를 탈 수 있으며 수족관 공연장, 수영장 등 자연과 함께 다양한 활동 가능함
- 주요 포인트: 토템폴(장승), Prospect Point(전망대), English Bay

○ 잉글리쉬 베이 (English Bay)



- 다운타운 서쪽 끝자락에 접하고 있어 해변과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음
- 8월에는 국가별 불꽃놀이 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림

○ 그라우스마운틴 (Grouse Mountain)



- 노스밴쿠버 위치. 해발 1,200m. 호텔에서 30분 정도 소요
- 여름에는 트레킹, 겨울은 스키 등 다양한 활동 가능
- 정상에서 밴쿠버 다운타운을 비롯한 전경 관람 가능 (정상까지 곤돌라 탑승)
- * 곤돌라는 15분 간격 운행하며, 최대탑승인원 100명 이상

○ 밴쿠버 아트갤러리 (Vancouver Art Gallery)



- 원래는 대법원으로 사용했던 곳으로, 1983년부터 미술관으로 사용하기 시작
- 빅토리아주 의사당과 페어몬트 엠프레스 호텔을 설계한 래트버리에 의해 설계된 네오 르네상스 양식의 건물
- 회화, 조각, 사진 등 다양한 작품과 BC주 출신 아티스트인 에밀리카의 작품 다수 전시

○ 개스타운 (Gastown)



- 다운타운 동남쪽 위치, 밴쿠버 발상지로 알려짐
- 1867년 영국 증기선 선장이었던 존 데이튼이 정착, 최초 술집을 개점, 그의 별명인 Gassy Jack이 알려져 개스타운으로 불리게 됨
- 옛 밴쿠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기념품 가게, 특색 있는 상점, 개성 있는 식당 다수
- 주요 포인트 : 증기시계(15분마다 증기배출), 개시잭동상

○ 그랜빌 아일랜드 (Granville Island)



- 다운타운에서 Granville Bridge를 지나 남쪽에 위치
- 원래 공장단지였으나 리모델링 후, 관광지로 거듭남
-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를 접할 수 있으며, 기념품가게, 갤러리 소재
- 주요 포인트: 퍼블릭마켓(현지 시장)

○ 휘슬러 (Whistler Mountain)



- 밴쿠버 북방 120km 지점에 위치한 세계적 스키 관광지
- 스키장은 매년 11월부터 5월 중순까지 개장되며 여름에도 휴양지로서 관광객을 위해 산 정상까지 곤돌라 운행

○ 해리슨 온천 (Harrison Hot Springs)



- 밴쿠버시 동쪽으로 126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유황 온천

□ 주요 식당 리스트

구분	상호명	전화	주소
한식	수라	604.687.7872	1518 Robson St., Vancouver
	장모집	604.687.0712	1575 Robson St., Vancouver
	북경반점 (한중식)	604.629.8822	1638 Robson St., Vancouver
중식	Kirin Restaurant	604.682.8833	1172 Alberni St., Vancouver
	Dinesty	604.669.7769	1719 Robson St., Vancouver
일식	Akira Sushi	604.806.6321	1069 Denman St, Vancouver
	Kamei Royale	604.687.8588	1066 W. Hasting St., Vancouver
양식	Keg Steakhouse	604.685.4388	1121 Alberni St., Vancouver
	Cactus Club Cafe	604.687.3278	1136 Robson St., Vancouver

□ 주요 한국 식료품점

상호명	전화	주소
H-mart(다운타운)	604.609.4567	590 Robson St., Vancouver
H-mart(코퀴틀람)	604.939.0159	100-329 North Road, Coquitlam
한남수퍼마켓	604.420.8856	106-4501 North Road, Burbaby
김스마트	604.872.8885	523 E. Broadway, Vancouver

□ 주요 여행사

상호명	전화번호	주소
하나투어	604.321.8384	103-4501 North Road, Burnaby
OK투어	604.893.8687	9920 Lougheed Hwy, Burnaby
KJ투어	778.241.6367	407-3105 Lincoln Ave, Coquitlam

해외출장 가이드



www.kotra.or.kr